

한미FTA 타결에 따른 경쟁력 확보 시급!

- 신선란 15년, 닭다리(냉동) 10년 관세 철폐 -



▲양계업계에서 한미 FTA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본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본회에서 개최된 협의 장면)

1. 한미 FTA 타결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앞으로 국내 양계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는 물론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FTA협상은 지난해 3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정부로부터 공식 선언되면서 시작되었다. 농가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예상 아래 농민들의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6월 5일 워싱턴에서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9개월에 걸쳐 8차 협상(3월 8일)이 이루어졌지만 농업분야는 당시까지만 해도 양측의 견해가 커 협상시한인 3월말까지 타결이 어려워 보였다.

양측은 마지막까지 고위급 협상을 통해 민감품목에 대한 최종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량을 발휘하였으며, 협상시한을 2일간 연장하면서까지 막

판 줄다리기가 이어져 결국 4월 2일 최종 협상이 타결되었다.

2. 양계산물 15년 이내 관세 단계적 철폐

협상과정에서 양계분야는 본회를 중심으로 계란 신선란 및 닭다리 냉동품 등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에 가장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사전 농림부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 협상대상에 포함된 가금축산물은 총 52개 품목으로 중계·종란 및 병아리 6개 품목, 계란 관련 9개 품목, 닭고기 관련품목 26개 품목, 오리 등 11개 품목이다.

표1에서 보면 양계산물은 장기 15년 이내에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농림부

는 브리핑을 통해 닭고기의 경우 10~12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어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업소용은 수입산 냉동육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계란에 대해서는 신선란의 경우 국내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입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였지만 가공란에 대해서는 관련식품의 소비가 급증

하지 않는 한 피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이미 미국산 닭고기의 관세가 50% 감축되는 5년후에는 국내산 닭고기 시장 가격이 3.7~6.3% 하락하고, 생산은 1.2~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10년후에는 국내산 닭고기 시장의 가격이 7.3~12.5% 하락하고, 생산은 2.3~4% 까지 감소할 것으로 피해를 내다본 바 있다.

계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가공란을 중심으로 피해가 클 것이며, 신선란의 경우에도 단가 차이가 커 결코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표1. 한미FTA 협상결과 양계산물(41개 품목)

양허유형	품목명	실행세율(%)	(단위:천\$)	
			세계수입액	미국산수입액
즉시철폐	1.닭(기타/185g 이하)	9.0	-	-
	2.가금류(기타/185g 이하)	9.0	-	-
	3.닭(기타/2,000g 이하)	9.0	-	-
	4.닭(기타/2,000g 초과)	9.0	-	-
	5.가금류(기타)	9.0	-	-
	6.가금의 비계	3.0	-	-
	7.새의 우모분	5.0	-	-
	8.가금지	3.0	190	-
5년철폐	1.난백(건조)	8.0	1,712	46
	2.난백(기타)	8.0	895	377
10년철폐	1.닭간장(냉장)	22.5	-	-
	2.닭기타설육(냉장)	27.0	-	-
	3.닭다리(냉장)	18.0	13	-
	4.닭가슴(냉장)	18.0	51	6
	5.닭날개(냉장)	18.0	-	-
	6.닭기타절단육(냉장)	18.0	-	-
	7.닭고기(기타/미절단/냉동)	20.0	202	36
	8.닭다리(냉동)	20.0	45,969	20,675
	9.닭기타절단육(냉동)	20.0	2,452	660
	10.닭간장(냉동)	22.5	33	-
	11.닭기타설육(냉동)	27.0	102	-
	12.조란기타(0407:껍질있는 것)	27.0	791	94
	13.조란기타(0408:껍질없는 것)	27.0	137	13
	14.조란(건조한 것)	27.0	235	50
	15.가금류(육또는실용설육분,조분)	22.5	118	7
	16.가금류의고기(육또는실용설육분,조분)	22.5	31	30
	17.삼계탕(밀폐용기의 것)	30.0	23	-
	18.닭고기(기타밀폐용기의 것)	30.0	4,001	90
	19.닭고기(기타조제저장)	30.0	10,849	62
	20.마요네스	8.0	261	54
12년철폐	1.닭고기(550g이하/미절단/냉장)	18.0	-	-
	2.닭고기(기타/미절단/냉장)	18.0	-	-
	3.닭고기(500g이하/미절단/냉동)	20.0	-	-
	4.닭가슴(냉동)	20.0	1,868	149
	5.닭날개(냉동)	20.0	22,255	386
	6.난황(건조한 것)	27.0	994	404
	7.난황(기타)	27.0	3,228	2,124
	8.가금류의것(밀폐용기의 것)	30.0	148	4
	9.가금류의것(기타조제저장)	30.0	191	3
15년철폐	1.조란기타(신선);0407류	27.0	162	48
	2.조란(닭의것)	41.6	40	-

※ 굵은 글씨는 피해정도가 심할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3.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

1) 종계·종란 및 살아있는 닭

종계 및 살아있는 닭은 현재 9%의 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며, 10만수(지난해까지 46만1천수)에 대해서는 본회에서 추천을 받아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다. 종계 및 살아있는 닭은 즉시 철폐품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비준절차가 이루어지더라도 대부분 종계(D라인)에 한정되어 있고 수입 비용이 높아 크게 우려할 사



▲FTA 축산분야 생존전략 회의 장면(양계업계를 대표하여 이준동 충북도지회장이 FTA의 원천 반대의 뜻을 내보이기도 하였다.)

항은 아니라는 견해이다.

종란의 경우는 현재 27%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1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면서 국내 종란가격의 상승이 유발될 경우 수입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나 국내 수급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또한 피해가 미미하고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견해가 높다.

2) 닭고기

'03년부터 '05년까지 닭고기 평균 수입액을 보면 총 87,796천\$인데 이중 냉동 닭다리가 45,969천\$(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냉동 닭날개가 22,255천\$(25%), 열처리&가공 닭고기(밀폐하지 않은 것)가 10,849천\$(12%), 열처리&가공 닭고기(밀폐)가 4,001천\$(5%)순을 보이고 있다. 이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2,101천\$로 전체 수입액중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5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수입량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지난 2006년에는 미국의 수입 점유율이 36,927천\$로 67%를 차지해 그 수입 비율이 점점 높아짐을 알 수 있다.

'03년과 '05년 평균으로 볼 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중 냉동 닭다리가 20,675천\$로 대부분(9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는 32,467천\$(80%)로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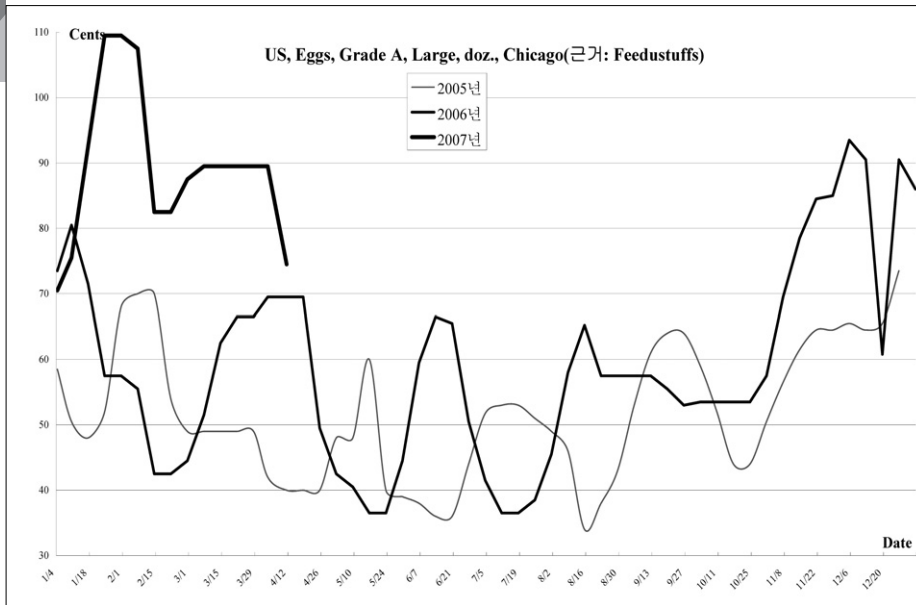
현행관세는 냉동 닭날개를 비롯한 관련제품이 20%, 열처리&가공 닭고기류가 30%, 냉장 닭고기류가 18%에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 FTA 협상 결과 냉동 닭다리과 기타 절단육, 열처리&가공 닭고기 제품은 10년 철폐, 냉동 가슴살과 닭날개는 12년 철폐로 발표되었다.

냉장 닭고기는 보관기간이 짧아 미국의 신선육 수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냉동 닭다리, 닭날개, 열처리&가공 닭고기의 경우 고병원성 AI 발생전 국내 소비의 27%까지 잠식했던 것을 상기할 때 최근의 증가세와 맞물려 관세가 철폐되는 10-12년 이후에는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외식·가공산업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부분이 수입육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지난해 닭다리의 수입가격은 약 1.1\$로 들어왔지만 10년후 관세가 철폐되면 0.8\$대로 낮아지면서 국내 시장을 급속히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해동(解凍)기술이 발달해 신선육 시장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3) 계란

계란은 닭고기에 비해 수입에 따른 피해가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지만 신선란의 수입이 큰 장애 없



〈도표1〉 미국의 계란가격 추이(산지 가격이 낮을 때는 32원, 높을 때는 9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변동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물론 가공란 시장은 더할 나위 없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전세계로부터 수입된 계란(조란 등) 수입액을 보면 총 8,194천\$인데 이중 난황액이 3,228천\$로 전체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난백분이 1,712천\$로 21%, 난황분말이 994천\$로 12%, 난백액이 895천\$로 11%, 구운란 등 가공란이 791천\$로 10% 순으로 나타났다. 신선란은 지난 2000년 초 태국에서 한차례 들어온 이후 아직 실적은 없는 상태이며, 식용이 아닌 종란 등이 2%, 실험용 원란 등이 0.4%로 신선한 상태로는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미국으로부터는 전체 수입물량중 40%가 수입되고 있으며, 이중 난황이 77%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관세는 난백이 8%, 난황 및 가공란 등이 27%, 신선란이 41.6% (MMA관세 30%)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신선란의 경우 식용으로 수입할 경우 본회의 추천을 받아야만 30%의 관세를 적용받

아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신선란(원란)의 수입이 없었으나 FTA 타결 후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선란(원

란)의 경우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어 15년 철폐가 발표되었고, 가장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난황(건조 등)은 12년 철폐, 구운란 등 가공란은 10년철폐, 난백은 5년 철폐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에서는 가공품 및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품목들이 제과, 제빵용, 계맛살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관련식품의 소비가 급증하지 않는 한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정도의 국내 가공란 소비가 미국원료로 대체된다면, 국내 가공시장이 확대되는 추세가 지속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가공산업에 투자한 공장들이 외국산에 밀려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림에서 보듯이 식란의 경우도 미국의 산지 계란가격이 30원대까지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 관세가 폐지되면 물류비용을 감안하더라도 40원대에 국내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농가들이 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4. 농가들의 반응 및 요구사항

한미 FTA타결 이후 본회를 중심으로 대책마련이 분주하다. 농가들은 앞으로 있을 비준과 이행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앞으로의 사업진로에 대해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놓였다.

양계인들은 지난 6일 개최된 긴급 대책 회의에서 우선 폐업농가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농가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현대화 시설 지원, 단체급식에 국내 양계산물 사용 규제화, 원산지 표시제 철저이행,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질병예방 대책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축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축산분야 생존전략 모색'에서 축산인들은 한미 FTA의 원천 반대를 주장하면서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터뜨린 반면 한편으로는 FTA가 최종 발효된다는 전제하에 대책을 준비해나가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양계인들 대표하여 참석한 이준동 충북도지회장은 한미 FTA에 대해 지금까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더 이상의 개방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생산량 증가를 부추기는 육계 계열화 사업 확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불법으로 사육되고 있는 백세미에 대한 관리는 물론 종계사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근본적으로 사육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5. 향후 일정 및 대응방안

아직 한미 FTA가 완전 타결된 것은 아니다. 미국은 수십개의 자문위원회가 협정문을 검토한 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우리나라도 국회 비준절차가 남아있다. 한우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은 이번 협상을 기대 이하의 협상으로 간주, 협상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가 하면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준비하는 등 비준절차가 쉽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한중 FTA, 한EU FTA 등 협상이 기다리고 있으며, 일시 중단된 DDA 협상도 재개될 경우 세계 무역장벽 붕괴는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정부에서도 FTA체결 이후 각 생산자 단체를 방문하여 이해를 구하는 한편, 1조2천억에 해당하는 자금을 들여 폐업보상금 지급, 생산피해액 보조 등 향후 입장을 밝히고 각 업계로부터 향후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늦어도 5월초까지 정부 대책 및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내용을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를 2조2,830억원에 이르고 14만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유리한 조건에 협상이 이루어진 만큼 이보다는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계업계의 피해는 예견된 수준이다. 이러한 부분은 면밀히 분석되어 장단기적인 대책을 통해 준비가 되어져야 하지만 농가들도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계산물 생산 등 자구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하겠다. 아직 찬반여론이 지속되고 있지만 양계업계를 정확히 직시하고 양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의 대안을 차근차근 준비해가야 할 것이다.



취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